

앞으로 10년



서울 민통련 의장 최장학

1935년생, 조선일보 자유언론수호 투쟁위원장, 민주언론운동협의회 공동대표, 남기발생인, 한겨레신문 창간위원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한 수료생이 수료증 수여식에서 답사를 하면서
자기는 이제까지 받은 졸업장이나 수료증들 중
민주시민학교 수료증을 가장 자랑스럽고
값진 것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송건호 김인한 선생과 함께 재야연론계 대표로 민통련 창설에 참여했습니다. 송 선생은 부의장이 되고 김 선생과 나는 중앙위원이 되었지요. 당시는 유신 독재를 이어 받은 전두환의 군사독재 권력이 민주화 요구와 통일운동을 극심하게 탄압했던 엄혹한 때여서 목표한 바를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민통련에 가입한 동지들은 저들의 제지와 방해를 따돌리고 활동하느라고 이곳 저곳으로 옮겨다니면서 수없이 회의를 열고 농성하며 가두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런지라 이제 와서 당시를 회상하자니 그것들이 내 머리 속에서 뒤범벅이 되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딱히 짚어낼 수 없군요. 게다가 사람의 심리 기제는 즐겁지 않은 일들, 기억하기 싫은 일들은 잊고 싶어하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민통련이 결성되기 훨씬 전에 독재 권력에 의해 해직당한 언론인들 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만은 민주언론운동협의회를 만들었고, 그 조직을 바탕으로 언론의 자유와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해 사흘이 멀다고 사무실에 나와 철야농성을 하고 항의성명을 냈습니다.

그 일을 하기에다 버겁고 힘겨운데 민통련은 나에게 회의에 참석해 달라, 농성에 가담해 달라, 시위에 나와 달라고 수시로 지령(?)하니 그 어찌 마음 무겁고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때문에 내 마음은 고통스러웠고, 그 때 그 일들을 나도 모르게 망각의 심연 속에 묻어두려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머리 속에 남아 있는 기억들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 중 몇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 민통련이 출범한 직후로 여겨집니다만 문익환 의장이 한 모임에서 앞으로 5년 안에 민족 통일이 이뤄진다고 단정하듯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임에 참석했던 나는 그 말에 이의를 달았습니다. “5년 안에 통일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통일을 위한 정지 작업이나 예비를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인데, 것처럼 짧은 기간에 성취되겠습니까? 10년 안에만 통일을 이룩해도 우리 민족에게 큰 다행이 아닐는지요?”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통일은 아직도 답답한 제자리 걸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젠 60년 동안이나 남북 분단에서 이득을 취해 온 음험한 훈수꾼과 훼방꾼들의 걸 다르고 속다른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더 늦기 전에 우리끼리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통일의 구체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민통련이 발족하면서 개설한 배움터가 민족학교였는데 교장은 김병걸 선생이 맡으셨습니다. 강의실은 민통련 사무실이 들어 있던 장충동 분도회관의 지하층에 두었습니다. 김선생이 나더러 학교 운영을 도와달라고 청하시기에 나는 쾌락하고 그 일에 관여했습니다. 벽보, 전단 등을 만들어 제1기 수강생을 모집했는데, 자주교육, 통일교육이라곤 전무했던 시절이어서 많은 청장년들이 응모해 왔습니다.

그러나 첫 강의부터 열리지 못했습니다. 사복 경찰들이 강의실 입구를 봉쇄하고 수강생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입니다. 며칠간이나 날마다 강의 시간인 저녁 6시경이 되면 경찰이 들이닥쳐 막았으므로 강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강의 장소를 전철역에서 가까운 성동구 화양동의 한 건물 1층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수강생들이 다 모여들기도 전에 파란 테가 둘러 은회색 헬멧을 쓴 전투경찰들이 몰려와서 건물앞을 가로 막았습니다. 수강생들은 그들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밀려났고, 그 곳에서의 강의도 불발로 끝났습니다.

작고 가냘픈 체구에 선량하기만 한 김병걸 선생도 나도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시민을 대

상으로 강좌를 여는 것이 뭐 그리도 대단한 일이라고 이처럼 막는단 말인가.”라고 치를 떨었습니다. 민족학교에 등록된 수강생들은 강의 한번 제대로 듣지 못했으나 강의를 듣고자 한 그 열성과 이리저리 옮겨다닌 노고를 인정받아 수료증을 수여받았습니다. 결국 그런 강압 때문에 민족학교는 존속되지 못했던 것으로 압니다. 아마도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셋째, 내가 서울민통련 의장으로 있을 때, 서울민통련은 민주시민학교를 열었습니다. 그 운영을 떠맡은 실무진은 유종순, 최연희, 김영수 등 젊은 활동가 동지였고, 기별 교육과정은 여러 민주인사를 분야별 강사로 초빙한 12강좌였습니다.

신촌 네거리 부근에 강의실을 얻고 제1기생을 모집했는데, 당국의 감시의 눈길이 번뜩이는 시절이었는데도 수강 신청자들이 3백명가량이나 모여들었습니다. 생각같아선 그들을 모두 받아들이고 싶었으나 강의실로 120명쯤 들여보내자 실내 바닥에 포개 앉을만큼 수강생들이 가득 찼고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추운 겨울인데도 그 곳에 온 나머지 신청자들은 어쩔 수 없이 돌려보내야 했는데 그들의 그런 열의가 지금도 가끔씩 느껴집니다.

민주시민학교는 햇수로 5년 넘게, 기수로 16기인가 17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배출한 수료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리송하여 당시 실무자에게 전화로 물었더니, 그 수효가 통틀어 2천명가량 되며, 그 중 16%쯤 되는 분들이 서울민통련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대답하더군요.

학교를 운영하면서 겪었던 애로사항들 중 가장 큰 것이 강의 장소의 확보였는데, 건물주들이 경찰이나 동사무소 직원의 압력을 받아 방치하다시피 놔둔 허름한 빈 공간조차도 빌려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길은 있었습니다. 고맙게도 종교단체들의 호의로 그 시설을 제공받아 강의를 계속할 수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것처럼 이용할 수 있었던 곳으로는 충정로 뒷길에 있는 기독교 선교교육원, 홍근수 목사의 향린교회, 2호선 합정역에서 내려 절두산 쪽으로 한참이나 언덕길을 걸어 올라가야 나타나는 마리스타 수도원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만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서울민통련 깃발 아래 뭉친 여러 활동가들과 많은 회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즐기차게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한 수료생은 수료증 수여식에서 답사를 하면서, 자기는 이제까지 받은 졸업장이나 수료증들 중 민주시민학교 수료증을 가장 자랑스럽고 값진 것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이 수료증을 액자에 넣어 소장하면서 가보삼아 자손 대대로 물려주게 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그 분이 현재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만 이 글을 본다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나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민주시민학교를 개설한 죄(?)로 나는 몇 년간이나 경찰로부터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서울교육청이 나를 학교 책임자로 지목하여 경찰에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사설 강습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주소지 관할 경찰서인 서부서는 한 달에도 몇 번 씩이나 출두요구서를 내게 보내 왔는데, 그것이 서너해 동안이나 계속되었으니 지금 회상해도 그 때가 지겹게 느껴집니다. 내가 끝내 나가지 않자 경찰관이 내집으로 찾아와 내게서 피고발인 진술 몇 마디를 들은 뒤에 그 고발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나는 검찰의 소환장을 받고 서소문에 있었던 검찰청사로 갔습니다. 담당 검사는 내 앞에서 경찰조서를 보는 등 마는 등 훑어 보더니 이 건은 불기소 처분할테니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 일이 그렇게 마무리되어서 내 마음은 한결 홀가분해졌습니다. 그 때 나는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마포서로부터 터도 출두 요구를 몇 차례나 받았던 참이었기 때문입니다.

넷째, 언제 무슨 일로 그랬는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민통련 관계자 등 30여명이 기독교회관 5층에서 철야단식농성을 했을 때입니다. 나는 마침 함석헌, 백기완 선생 등 몇 분과 어울려 실내 한 귀퉁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하루 종일 앉아 있자니 무료하기도 해서 그 자리에선 이런 저런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그런 중에 명동의 전진상회관에서 노자를 강의하시기도 했던 함 선생께서 노자의 두어 구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따라 화제는 자연스럽게 한문에 관한 것으로 변했습니다. 나도 몇 마디 말참견을 하다가 조심스럽게 “일인 한학자 모로하시 데쓰지가 펴낸 대한화사전이 이제까지 출간된 동양 3국의 한자사전들 가운데서 가장 특출한 것이 아닐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함 선생이 “모로하시는 내 선생이야. 내가 그 분한테서 한문을 배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로하시 데쓰지가 함석헌선생의 한문 선생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한참 있다가 백기완 선생이 느닷없이 아버지 빨이나 되는 함 선생에게 “저 영감이 얼굴은 순해 봐지만 눈에 싸남이 들었어.”라고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함 선생은 그 말을 듣고도 허연 수염을 기른 잔 주름살 많은 얼굴에 아무런 표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두어번 눈을 깜박거리기만 하셨습니다. 나는 백 선생이 한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직감했습니다. 그런 당돌한 말을 할 만큼 배포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런 말들을 들었기에 그 농성은 나에겐 잊을 수 없는 것이 되었나 봅니다.